

2009년 01월 08일 (목) 17:56 [뉴스시스](#)
부산 문화재단 출범...지역 문예진흥 사업
【부산=뉴스시스】

부산 문화의 산파 역할을 맡게될 '부산문화재단'이 8일 공식 출범했다.

재단법인 부산문화재단은 이날 오전10시30분 시청 소회의실에서 가진 창립총회에서 조직구성 등에 관한 정관을 확정하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문화재단은 이날 [허남식](#) 부산시장 등 당연직 이사 4명을 포함해 이사 15명과 감사 2명을 선출하고 재단설립 허가신청 절차를 밟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사로 위촉된 일부 인사들이 반발해 진통이 예상된다.

[문예진흥기금](#)과 시 출연금 등 총 113억5000만 원을 기본 재산으로 출범한 부산문화재단은 2018년까지 부산시로부터 매년 40억 원을 출연받아 총 500억 원 규모로 늘려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재단은 올해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과 무대공연 지원사업을 비롯해 찾아가는 문화활동, 메세나 활성화, 토요일상설 전통민속놀이마당, 연구창작, 문화포럼사업 개최, 저소득층 문화 관람권, 소외계층 문화 예술교육 등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도 추진한다.

재단 이사장인 허 시장은 "영화와 연극 미술 등 장르별 예술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지만 부산의 문화분야가 더 발전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지역 문화정책을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 문화재단을 출범시키게 됐다"고 말했다.

허상천기자 heraid@newsis.com

<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스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